

예 배 순 서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에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통일 찬송가 3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이 시간 가족 중에서 ○○○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깊은 골짜기와 넘기 힘든 언덕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들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화해와 연합이 있게 하시고, 축하할 일은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에는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31~33(9쪽)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 씀(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온 식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갖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겨운 사랑을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인다는 것은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며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추석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게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정과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3절에“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사업과 모든 일 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애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에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가정에 채워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통일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온 가족과 생업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담임목사 황남일

2024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누구나 예배 순서지를 읽으며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길 20 / T. 994-8812(대표)
F. 994-8817 www.scdch.org